

한국문화의 세계와의 소통의 전략

Korean Culture and its Strategy for communicating with the world

진상범¹

Sang Bum Chin¹

요약

21세기를 맞이하여 우리 조상들이 물려 준 한국문화 속에 내재된 외국과 다른 독창적인 문화의 정체성을 규명한 다음에 그러한 한국문화를 세계에 소통시킬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제1장에서 동양이 어떻게 서양문화를 속도감 있게 변화를 시킬 수 있었던가를 살펴보았다.

제2장에서는 아직도 서양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한국적 문화적 정체성이 존재하는지를 이미 외국에서 한국문화를 세계화 시켰던 대표적인 한국 예술가 백남준, 윤이상 그리고 이미륵과 관련하여 그 세계화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그 세계와의 소통의 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한국문화의 세계화 전략을 다음과 같이 결론을 얻어 낼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독창적인 한국문화를 다양한 외국어로 번역하여 세계화할 필요성이 있다.

외국의 경우 우리는 유럽 국가들에서는 독일을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는 일본이 어떻게 그들의 문화를 세계화를 실현할 수 있었는지를 고찰하고 그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사실이다.

한국문화의 세계화전략에 상대방의 약점을 우리의 강점으로 응용하였던 이순신의 장군의 전략을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한국의 8도 강산에 지역의 특수한 음식을 개발하면서 주변의 풍광과 음식 축제를 다 같이 아우르는 문화관광센터를 설립하여 그 안에 외국 관광객들에게 관광정보를 제공하는 유비쿼터스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전통예술을 통하여 육체의 병을 고치는 음식치료를 하면서 문화 관광을 겸하는 문화상품도 개발해야 한다. 단계적으로 미디어를 다양하게 개발하여 쉽고 빠르게 세계인들이 한국의 문화를 접근할 수 있도록 유비쿼터스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 나라에 살고 있는 한민족의 단체와 상호 협조 체제를 가질 수 있는 한민족 소통을 위한 네트워크시스템을 작동시켜야 한다.

핵심어 : 전략, 소통, 한국문화, 음식, 축제, 세계화

Abstract

At this point on entering into the 21st century, it is very important for us that the substance of various cultural identity which the wise ancestors has left behind should be clarified. After that, it is an urgent task for us to reveal the cultural identity of Korea to the world. In the first chapter of this paper, I investigated how the East could make the western culture change rapidly.

In the second chapter, I examined into what is the cultural identity of Korea that can change the West

1 Institute for Cultural communication of Chonbuk National University, Jeonju, 561-756, Korea.
e-mail : csb@jbn.ac.kr

* 본 논문은 2014년도 인문 사회계열교수연구기반 조성비지원을 받아 이루어진 것임

Received(April 14.2013), Review (April 30.2013), Accepted(June 30.2013)

and the possibility on how to globalize it. In relations with Korean artists like Man Jun Paik, I Sang Yoon and Mirok Lee, who successfully globalized Korean culture in other foreign countries.

In third chapter, I considered the Strategy of globalization of Korean culture. As such result I can suggest the way for globalization of Korean culture is a need to translate Korean creative culture with various foreign languages for its globalization.

In the case of a foreign country, we must learn how to globalize Korean culture from Germany, among European Countries and from Japan, among Asian countries, which their culture have already been globalized.

I will suggest to adopt the strategy of General lee, Sun Shin, in the spirit of strategies of cultural globalization of Korea.

After having established the center for cultural tourism, controlling the surrounding's beautiful scenery and food festivals, developing authentic food originated from the 8 Provinces of Korea. It is also necessary for us to adopt the Ubiquitous System to provide tourists all information for all foreign tourists.

Keyword : strategy, communication, Korean Culture, food, festival, the world

1. 동양은 과연 서양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먼저 과연 동양이 서양을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를 간단하게 요점만 살펴보기로 하자. 동양은 서양에 문화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중국인이 발견한 종이제조법이 서양인들의 손에 들어가 인쇄술에 접목시켜 획기적인 문화적 혁명으로 발전시키기도 하였다.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Martin Luther는 그러한 인쇄술의 덕분에 짧은 시간에 종교 개혁을 성공적으로 성취할 수 있었다. 16세기에 유럽의 많은 선교사들이 기독교 선교의 목적으로 중국에 와서 수많은 중국의 고전을 유럽어로 번역하여 유럽인들의 지적인 지평을 열어 준 바 있다. 그 결과로 유럽의 계몽주의 시대의 문이 열리게 된다. 그 당시에 중국에 선교사로 왔던 부베 Bouvet신부로부터 서신왕래를 통하여 주역의 64괘를 접하게 되었던 라이프니츠 Leibniz는 그의 이진법의 기호 체계의 사상과 주역의 음양의 논리와 유사성을 인식하게 된다. 특히 아돌프 라이히바인(Adolf Reichwein)은 그의 저서 18세기 중국과 유럽, 지성적 및 예술적 접촉(*China and Europa. Intellectual and Artistic Contacts in the Eighteen Century*), 단자론(*Monadologie*), 예정조화설(*praestabierte Harmonie*)에서 라이프니츠의 사상이 중국사상과 일치하고 있음에 경탄을 금치 못하였다[1].

또한 필자의 저서 『서양예술과 동양탐색』에서 동양의 예술과 사상은 서양의 새로운 현대 예술 사조를 만드는 데도 많은 영감의 원천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동양은 예술사적인 면에서 인상주의, 유겐트스틸, 상징주의, 신낭만주의, 다다이즘, 표현주의, 초현실주의 사조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본인의 지난 3년간의 연구에서 살펴 볼 수 있었다[2]. 18세기 로코코 Rococo시대에는 도자기의 예술에 심취되기도 하고 중국의 자연스런 정원은 영국식 정원의 모델이 되기도 했다. 19세기 인상주의에서는 반 고흐는 일본의 히로쉬게의 활짝 핀 벚꽃이 만만한 것을 보고 자연의 종교로 예찬하며 일본의 그림을 그의 그림의 모델로 삼을 정도로 심취되어 있었다. 고흐는 일상적인 삶을 그대로 표

현하면서도 자연과 친화력을 보여주는 일본화에 감명을 받았다. 유겐트스틸의 예술사조도 일본과 중국의 장식 예술성에 영향을 받고 있다. 20세기에 와서는 다다이즘 예술 사조를 처음으로 착안한 짜라 C. Tzara는 불교사상에 심취한 바 있을 정도다. 서구의 많은 지성인들 예컨대 괴테의 세계문학의 이념에 동양의 교양 체험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톨스토이에게 노장사상이, 헤세에게 동양의 인도불교와 중국사상이, 카프카에 도가사상과 불교사상이, 릴케에 일본의 시학과 도가사상 등이 영향을 주었다. 그들은 새로운 예술 세계를 창조할 뿐 만 아니라, 전후 서구가 처한 암울한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새로운 유토피아로서 동양에서 구했다. 동아시아 중에서 일본, 중국 그리고 인도가 서양의 문화에 큰 영향을 행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우리 한국의 문화가 동양의 모든 불교, 유교 도교사상, 주역 사상으로부터 오랫동안 영향을 받아서오면서 다 같이 융해된 퓨전의 문화이다. 서양을 변화시켰던 동양의 유교, 불교 그리고 노장사상 그리고 기독교사상까지 융합되어 있는 한국문화가 앞으로 서양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체가 될 것으로 본다. 한국문화는 기존의 동양사상과 기독교사상까지도 포괄하고 있는 동서양의 종합적 요소를 지닌 혼합문화이기 때문이다. 본인은 이러한 비빔밥같이 융합과 조화의 멋과 맛의 문화소를 지닌 한국의 퓨전 문화이야말로 21세기를 주도할 수 있는 문화라고 자신 있게 주장하고 한다. 지금까지는 중국, 일본 그리고 인도가 주로 서양의 문화에 영향을 주도했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불교, 도교, 유교 그리고 기독교까지 융합되어 있는 한국의 퓨전의 문화가 서양에 한국이 낳은 예술가 백남준, 윤이상 그리고 이미륵을 통하여 큰 영향을 끼친 바 있으며 미래에도 계속될 것으로 믿고 있다.

2. 서양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이 무엇이며 어떻게 세계화할 수 있을까?

루돌프박사와 디에체 (Dr. Rudolf F. Dietze)는 그들의 저서 『한국의 문화유산 안내서 *Das kulturelbe Koreas- Ein Führer*』에서 다른 민족과 달리 한국인만이 독창적으로 만들어 낸 한국문화의 유산을 독일인에게 다음과 같이 25항목으로 나누어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요점만 제시하고 자 한다.

한복, 김치와 불고기, 한극, 정묘 제례악, 탈과 봉산탈춤, 태권도, 한국인삼, 불국사, 석굴암, 설악산, 한국 예술가, 전토 인쇄술, 전통 악기, 도자기 제조법, 단청, 장식 문양, 장신구, 자수, 한지, 제조 기술, 포장지, 민화, 세시풍습, 샤머니즘, 성년식, 씨름, 정원[3].

위에 지적하고 있는 한국문화의 정체성이 잘 드러난 음식으로서는 김치, 불고기 그리고 인삼이 있고, 기타 한국인의 섬세한 예술적 감각이 표출된 봉산탈춤, 인쇄술, 전통악기, 도자기, 단청, 장식 문양, 장신구, 자수, 현지 제조 기술, 포장술, 민화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상기한 책에서는 한 민족의 정체성을 은근과 끈기의 특성을 언급하곤 한다. 그 은근과 끈기의 특성이 상징적으로 잘 드러나 있는 단군신화를 떠올리게 된다. 일연(一然)의 『삼국유사 三國遺事』에서 한국의 단군 신화 속에 우리 숯과 마늘을 먹게 하였다는 사실부터 우리가 강인한 민족의 힘을 가지고 태어났음을 암시를 해는 대목이다. 곰과 호랑이가 어두운 동굴에 들어가서 곰은 쓰디 쓴 마늘고 썩을 먹으며 100 일이라는 시간과 어두운 동굴이라는 공간을 극복하여 인간이 되었다는 이야기이다[4]. 우리 조상들은 마늘이라는 현대 영양학에서도 가장 암을 이기는 약성이 들어 있는 마늘을 한국인의 창조 신화인 단군신화에 집어넣을 수 있었을 까하는 생각을 해 본다. 앞으로 올 많은 시련을 예견이라도 한 듯이 말이다. 우리 조상들은 그러한 강인한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수많은 역사적인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축적할 수 있었다고 보여 진다. 한국인의 가장 깊은 의식의 기저를 지재하고 있는 샤머니즘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국문학자와 신화학에 전통한 김열규교수는 그의 저서 『동북아시아 샤머니즘과 신화론』에서 시베리아 별판에서 인간의 질병과 고통을 치료해 주며 우주와 소통하였던 샤만을 경외심을 가지고 숭상하고 있었다. 이러한 샤머니즘의 의식은 외래의 불교 및 기독교가 한국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많이 반영되었다고 보여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5]. 또한 Ho-Toun Kwon가 펴낸 『한국문화의 뿌리, 종교와 사회사상 Korean Cultural Roots. Religion and Social Thoughts』에서 고난의 시대 속에서도 해학성이 풍부한 문화요, 소리를 담은 판소리, 그리고 그 한을 신명나게 국(진도 씻김굿)으로 해소시키는 문화라고 규정을 짓고 있다[6].

한국인이 위기 능력이 뛰어나다는 말은 수많은 전쟁을 치루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힘이 아니라 정신적 지혜라는 사실을 이미 깨달았다는 말로 이해된다. 처참한 시대를 이기고 살아남은 지혜로운 문화 민족이라는 말이다. 동학혁명이 일어났을 때, 외세로부터 핍박받은 원한을 복수로 푸는 것이 아니라, 상생의 종교로 승화시키고 있는 점을 살펴보아도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혜롭게 잘 극복해 가는 저력 있는 문화로 이해된다. 모든 종교가 갈등하지 않고 유불선 그리스도교가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 공존의 문화요, 오방색의 조화를 이루는 우주와 상통하는 색채가 있는 멋과 맛을 지닌 문화이다.

우리에게는 외국인과 구별 짓는 한국인만이 지니고 있는 문화적 정체성을 지니고 태어 났다고 본다. 한국인의 정체성의 요소를 특징적인 것만 열거하자면 한의 정서, 신바람, 흥의 정서, 정이 많은

점, 효의 정신, 충의 정신, 희생의 정신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한국적 정체성을 세계화 실현시켰던 인물을 중심으로 그들의 세계화 과정을 소개할 까한 다.

서양에서 가서 한국을 빛낸 세 명의 대표적인 예술가를 언급한다면 윤이상, 백남준 그리고 이미 륵을 들 수 있다. 먼저 윤이상은 심청전을 독일에 오페라로 개작하여 독일인의 가슴에 송고하고 효 성스런 심청이의 청순한 이미지를 심어 준 바 있다. 비디오 아티스트인 백남준 선생이 국제무대에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한국인으로서 세련되고 우아한 미학과 한국적 토속적 사상의 바탕이 되는 샤머니즘과 심오한 불교적 사상과 도가사상을 과감히 도입하여 서양 예술의 한계를 극복하였 던 것으로 판단된다.

귄터 베르거(Guenther Berger)는 그의 백남준과의 대화 *The More, The Better-Gespraech mit Man - June Paik*에서 다음과 같이 백남준이 극동사상의 영향으로부터 받았음을 고백한 바 있다.

Manchmal dringenden feroestliche Gedanken ein, die ich nicht negierge, ohne deswegen nationalstisch zu sein. 극동의 사상이 수 없이 머릿속으로 밀고 들어오곤 하는 데, 그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 때 문에 국수적으로 되지도 않고요[7].

세계인들에게 이미 공감을 일으켰던 한국인으로서 백남준의 비디오아트와 윤이상의 음악 세계에 어떠한 한국적 문화소가 작용하여, 그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지를 집중적으로 검 토 분석해 보는 작업이 남아 있다. 이미 세계적으로 독창성과 예술성면에서 인정을 받았던 작곡가 윤이상의 예술 세계와 백남준의 영상 예술 세계에 한국 문화를 수용하지 않았더라면 그와 같은 세 계적 작가가 될 수 있었을까? 백남준과 윤이상이 외국에서 인정받을 수 있었던 요소는 무엇인가를 탐색해 봄으로써 한국 문화가 세계화되는 데 결정적인 단초를 얻어 낼 수 있다고 본다. 양 작가는 서양의 예술에 동양의 정신과 예술을 접목시킴으로써 새로운 예술을 창조하고 있는 데 한국적 요소 는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 지를 늦은 감이 있지만 다시 한 번 면밀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백남준이 돼지머리를 상에 놓고 하얀 한복을 입고 갓을 쓰고 무당의 굿을 보는 듯한 행위예술을 보여 주고 있 다. 그는 우리 한국인의 의식 깊은 곳에 잠재되어 있는 샤만의 정신을 일깨우는 듯한 다다이스트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 같다. 또한 윤이상은 80년대 초에 심청전을 오페라로 독일의 무대에 공연하게 된다. 본 작품은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해 주기위해서 심청의 몸을 인당수에 던짐으로써 다시 연꽃으 로 변화되어 저 세상에서 아버지를 상봉한다. 그는 주인공 심청을 통해서 서양인들에게 심청의 극진

한 효심을 보여 주는 동시에 그녀의 희생적인 죽음을 통해서 연꽃으로 환생하는 신비스러운 분위기를 느끼게 한다. 윤이상 자신이 본인의 작품세계에 동양의 道의 陰陽의 세계와 유교적 효(孝)의 덕목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고백한 바 있다. 윤이상이 유럽의 관객들에게 한국적 유교적 효심의 덕목과 불교적 환생의 문화를 보여 주지 않았더라면 세계적인 작곡가가 될 수 있었을까? 또한 윤이상은 다른 유럽의 작곡가들과 차별화가 가능했을까? 국문학 홍일식 교수는 그의 저서 한국인에게 무엇이 있는가? 에서 윤이상의 효 사상을 홍일식은 그의 저서 『한국인에게 무엇이 있는가. 21세기 인류문명의 주역이 되기 위한 한국인의 자기 점검』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1972년 뮌헨올림픽의 문화 행사로 윤이상의 가극 심청이 초연되었을 때, 서양 사람들을 충격으로 몰아넣은 것도 바로 이 부분이다. 심청의 지극한 효성, 그 마음, 한국적인 그 마음으로서 장님 아버지가 마지막에 눈을 뜨는데, 그것도 아버지만이 아니라 모든 장님이 한꺼번에 떴다고 하는 것, 이것은 서양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모티브였던 것이다. 윤이상의 음악이 유럽에서 그토록 추앙받고 있는 것도 그의 음악에 담긴 바로 이러한 한국적 정서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겠는가[8]?

최성만, 홍은미 편역된 책 『윤이상의 음악 세계』에서 윤이상은 조상이 물려 준 전통문화가 없었다면 그의 음악의 탄생도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다,

내 음악은 내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내 우주의 큰 힘, 눈에 보이지 않는 큰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주에는 음악이 흐릅니다. 이 흐르는 우주의 음악을 내 예민한 귀를 통해 내 놓을 뿐입니다. (..) 내가 오늘 국제적으로 이름난 작곡가가 되었지만, 이것은 내 민족의 뛰어난 예술적 전통을 이어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족은 참으로 훌륭한 예술적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동양의 그 어느 민족보다도 통활한 도교사상을 가장 구체적으로 보존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음악은 이 전통을 그대로 갖고 있고, 바로 전통 속에서 내가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오늘의 내 음악이 존재합니다. 이 전통문화권 밖에 있었다면 어떻게 나의 음악이 나오겠습니까. 위대한 조상과 찬란한 전통을 가졌기 때문에 나의 음악은 나만의 음악이 아닙니다[9].

세 번째로 한국인으로서 일제강점기에 한국을 떠나 먼 이국 땅, 독일에 가서 독일어로 작품을 썼던 이미륵(Mirok Li)을 소개하고 자 한다. 이미륵사업에 헌신하신 정규화교수가 한국어로 번역한 이

미륵 『압록강은 흐른다 *Der Yalu fließt*』에서 그의 어린 시절과 젊은 날의 체험을 바탕으로 성장 소설을 소개하여 한국에서도 좋은 독자의 반응을 받은 바 있다[10]. 그는 그의 작품에서 한국인의 생활상과 사고방식을 자서전적인 서사형식을 빌려서 표현하였다. 특히 전후 독일에서 1946년 초판이 발행되자 곧 매진되어 1950년에 재판이 나와 다시 절품이 될 정도로 인기 있는 작가 되었다. 독일 중고등학교의 교재에 실릴 정도로 문장이 고상하고 고결한 문체로 인정받았던 것이다. 한국인으로서 그 나라 언어로 한국적 문화의 정체성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는 데, 성공한 작가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이미 앞서 언급한 윤이상, 백남준 그리고 이미륵의 예술작품은 서양인들에게 한국문화를 영상 예술, 오페라와 문학이라는 예술양식을 통하여 다양하게 보여 줌으로서 세계화의 가능성을 일찍이 보여주었고 그 전략의 기본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고 본다.

최근의 한국문화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세계화의 중심 무대에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예컨대 독일의 신선합기도를 세계화하는 데 기여했던 고명 선생님과 사물놀이로 세계에 알리는 데 기여한 김덕수 같은 인물 그리고 송승환의 난타를 들 수 있다. 그들이 한국문화의 세계화할 수 있는 힘은 한국적인 고유한 정서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몸소 보여 준 모범적인 사례로 높이 평가할 만하다. 예컨대 고명선생님은 초창기에 합기도를 독일인들한테 전수할 때, 한국적인 정체성의 하나인 정(情)의 정서를 부각시켰다고 한다. 한국인들은 마음만 잘 맞으면 속에 있는 것을 다 주려는 정(情)이 넘치는 민족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그들이 정서 속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정서인 정이라는 한국인의 고유한 정서인 정에 넘치는 행동으로 보여줌으로 독일인들이 없는 정이라는 정서에 감동되어 많은 독일들이 신선 합기도에 입문하게 되었다고 한다.

김덕수의 경우에도 한국인이 지니고 있는 신바람과 흥(興)의 정서를 사물놀이 접목시킨 것으로 이해된다. 김덕수의 사물놀이를 보면 손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장구를 다루는 솜씨와 빠른 템포의 가락이 연기자들이 하나처럼 통일성 있게 맞추어서 댄으로써 외국인들의 마음속에 한국인의 고유한 정서인 흥이라는 정서를 유발시킬 수 있었던 것 아닌가 한다.

송승환의 ‘난타 극’의 경우에는 세계인들에게 심금을 울린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이었을까? 그것은 연기자들이 다 같이 빠른 동작으로 손과 타악기로 부엌에서 사용하는 주방장의 도구들을 타악기로 삼아서 템포 있는 가락을 만들어 자유스럽게 유희하면서도 통일적인 몸짓을 보여 줌으로서 서양인들로 하여금 신바람의 정서를 불러일으킨 것으로 이해된다.

3. 한국문화의 세계화의 전략

1) 다국어 번역을 통한 한국문화의 세계화

흔히 번역을 잘 못하면 번역자가 된다는 말이 있다. 번역이야 말로 전혀 모르는 문화를 이해하게 하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고 본다. 보통 한국문화를 소개할 경우에 영어 하나로 번역하면 다 소통된다는 안일한 생각에 빠지기가 쉽다. 그러나 한국문화를 진정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에게 소통시키려면 40개 이상의 외국어로 한국문화를 번역하여 홍보하여야 한다고 본다. 타국의 문화를 자국의 문화로 번역된 내용을 읽을 경우와 영어로 되어진 것으로 읽을 경우에 반응의 깊이가 다르다고 본다. 한국 문화를 세계화하려면 많은 외국어로 한국문화를 번역하여 세계의 모든 이들이 한국 문화를 손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모든 한국문화의 정보를 다국어로 번역해 내기는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한국문화 중 가장 중요한 한국인의 정체성을 한국음식에 관련하여 흥미진진하게 스토리텔링 하여 세계인들한테 알려 줄 절호의 기회가 오고 있다. 우리 음식 문화도 한국문화 속에서 이야기가 만들어 질 때 더욱 문화성 있는 유형 문화적 생산물로서 재탄생된다. 한국의 전통의 문화에 대해서 알고 싶은 사람에게 친절하게 정확히 외국어로 번역하여 문화 소개를 해야 한다. 외국인들이 그 나라로 친숙감을 가지고 이해하도록 한국 문화를 개발해야한다. 외국인들로부터 한국 문화가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은 양질의 문화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된다면 앞으로 한국의 문화적 이미지가 상승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물건도 고가의 생산제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정신적인 기반을 조성하는 방법이라고 본다. 단적으로 말하면 문화력은 곧 경제력으로 통한다. 한국이 문화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일차적인 작업으로 지구촌 가족에게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공감하도록 하고, 몸소 그와 같은 세련되고 신비한 문화를 정확하게 이해시키고 체험하도록 하는 일이다. 한국 문화가 지구촌 가족들이 더불어 공유할 수 있는 보편성과 독창성을 지닌 멋과 맛을 지닌 문화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학문적으로 체계화하여 널리 국외로 알리는 데 있다. 지구촌에 사는 사람들에게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수준 높은 문화로서의 보편성과 독창성을 인식시키어 주기위해서 서양문화와 비교 문화적 차원에서 한국 문화와의 동질성과 차이점을 밝혀내야 한다.

2) 외국의 경우 그들의 문화가 이미 세계화된 유럽국가들 중에서 독일,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일본을 예로 세계화의 방법을 한 수 배워야합니다.

독일은 일찍이 독일문화의 세계화를 위해서 각 나라에 괴테문화원을 설립하여 독일어보급뿐 만 아니라 독일문화를 홍보함으로써 독일문화의 세계화에 앞 장 서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일찍이 일본의 문화를 세계화하기 위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외에 일본 문화원을 설립하고 일본 문화를 번역하고 유럽에 일찍이 일본의 선의 사상, 하이쿠, 색채목판화를 문화 수출시키어 유럽의 예술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준 바 있다. 일본의 유럽인의 인식이 아시아의 백인종으로 보는 이유가 작은 일본이 거대한 러시아를 이겼다는 역사적 사실 뿐 만 아니라 문화면에서 세련되고 정신적인 차원이 높고 힘이 있는 문화라는 사실을 유럽인들에게 해외 문화 홍보를 통해서 주지시켜 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두 나라는 제 1, 2차 세계대전에서 약한 많은 나라를 무력으로 침략하고 잔인하게 학살 행위를 자행했던 역사적인 오명을 씻기 위해서 세계 각국에 문화 센터를 설립하여 잔인한 민족이 아니라 문화 민족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데 온 역량을 기울인 결과 현재 독일은 유럽의 중심국가가 되었고, 유럽에서는 일본은 황인종이 아닌 아시아의 백인종으로 취급받고 있다.

3) 이순신의 병법을 한국문화 세계화의 전략의 정신으로 도입했으면 한다.

이것은 일본과 전투에서 백전백승한 이순신의 병법에는 상대방의 약점을 재빨리 파악하고 아군이 지니고 있는 지형적 좋은 조건을 최대로 활용하여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것으로 이해한다.

우리도 맥도날드의 햄버그와 같은 브랜드를 창출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해 본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비빔밥에는 그들보다는 영양학적으로, 기능적으로 더 건강성을 보장해 주는 요소가 많다. 서양의 햄버그의 약점은 기름진 육식 중심의 내용물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현대인의 비만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그렇다면 비빔밥은 결코 햄버그가 지니고 있지 않은 건강성을 확보해 줄 수 있는 식품이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규명하여 널리 알릴뿐 만 아니라 비빔밥을 잘 개발하여 햄버그처럼 세계화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본인이 생각으로는 비빔밥의 햄버거화를 시도한다면 세계시장에서 승산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비빔밥을 세계화되려면 경영마인드로 이순신의 경영의 철학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비빔밥이 세계화되려면 햄버그의 영양학적인 약점인 비만을 야기 시키는 요소를 밝혀내고 우리 한국 음식이 서양인들에게 병을 이기는 면역을 강화시키는 힘 있는 보약이라는 이미지를 심어 줄 필요가 있다. 서양의 햄버그는 먹는 자의 건강을 해를 주는 요소가 있다면 우리 한국의 비빔밥에는 먹는 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요소를 강조하여 한국음식의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본다.

4) 한국의 8도 강산에 지역의 특수한 음식을 개발하면서 주변의 풍광과 음식 축제를 다 같이 아

우르는 문화관광센터를 설립하여 그 안에 외국 관광객들에게 관광정보를 제공하는 유비쿼터스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요즘 지역마다 특화사업을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다. 지역의 특화된 고유한 지역의 전통 음식과 지역의 풍광과 지역이 지니고 있는 전통문화를 관광 상품화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서 한국의 8도의 음식을 세계화하려면 지역마다의 특수한 음식, 생태 문화관광 그리고 국제 건강센터(교육센터포함)와 음식박물관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 그런 다음에 상호 연결망을 수립하고 총괄할 수 있는 문화관광본부를 설립하여 외국 관광객들이 언제 어디에서도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유비쿼터스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5) 프랑스의 유명한 연출가인 Zingaro 징가로가 한복을 입는 판소리꾼이 북을 치면서 판소리를 열창하게하고, 다른 한편 조선시대의 궁정 옷을 입고서 아악 연주단의 음악에 맞추어서 둥근 씨름판 같은 공간에서 말을 타면서 곡예를 부리는 곡마단의 묘기를 부리는 장면을 보여 주고 있다. 이 장면을 보면서 한국 판소리와 아악에다가 서구적인 곡마단의 곡예술의 역동성과 유희성을 가미하여 새롭게 융합하여 새로운 공연예술로 재탄생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도 한국의 음식문화도 경쟁력을 가지려면 외국 음식 문화의 장점을 과감히 도입하여 세계인의 입맛에 맞는 형태로 진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6) 한국의 전통예술을 통하여 육체의 병을 고치는 음식치료를 하면서 문화 관광을 겸하는 문화상품도 개발해야 한다. 예컨대 판소리와 시조를 한 대목하면서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마음을 가라앉히면서 내공을 쌓으면 면역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동시에 서양인들이 흥을 유발케 하는 장구, 팽과리와 북을 치면서 춤을 추게 하는 것도 하나의 문화 상품이 될 것으로 본다.

한국음식문화가 세계화하려면 한국을 여행하는 외국인들이 그들의 입맛에 맞는 참신한 음식을 맛보고, 음식 치료를 받으면서 음식 만들어 보는 체험관광, 음식 축제참가, 나아가서 주변의 생태 및 문화관광을 다 같이 경험해 보는 방향으로 나아 가야한다.

7) 단계적으로 미디어를 다양하게 개발하여 쉽고 빠르게 세계인들이 한국의 문화를 접근할 수 있도록 유비쿼터스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김치라는 단어를 치면 김치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다국어로 제공되는 디지털 시스템을 만들어 보는 것이다. 외국방문객이 한국에 오면 한국문화가 다국어로 입력되어 있는 유비쿼터스 모바일 시스템을 이용하여 한국 문화를 더욱 친숙하게 접

근하도록 한다면 선진 문화 관광의 강국으로 면모를 인식시키는 일이다.

8)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 나라에 살고 있는 한민족의 단체와 상호 협조 체제를 가질 수 있는 한민족 소통을 위한 네트워크시스템을 작동시켜야 한다. 영 미국권, 서구권, 유럽권, 남미권 아시아권에 사는 교포사회와 한민족의 유대 의식을 고취시켜어 그들로 하여금 우리 자랑스러운 한국의 문화를 세계와 소통의 주역으로 만들어야 한다.

4. 결론

21세기 맞이하여 우리는 조상들이 물려 준 다양한 문화의 정체성의 본질을 규명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다음에 세계로 알릴 한국문화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일이 시급한 과제이다. 본 논문에서는 제 1장에서는 동양이 어떻게 서양문화를 속도감 있게 변화를 시킬 수 있었던 가를 살펴보았다.

제 2장에서는 서양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한국적 문화적 정체성이 존재하는 지를 고찰하고 이미 외국에서 한국문화를 세계화를 실현하였던 가장 성공한 대표적인 한국예술가, 백남준, 윤이상 그리고 이미를 통하여 한국문화의 세계화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자 한다. 최근에 한국전통문화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세계의 무대에 선 보인 독일의 신선합기도의 선구자 고명, 김덕수 사물놀이 그리고 송승환의 난타를 통하여 한국문화의 세계화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

제 3장에서는 한국문화의 세계화 전략을 다음과 같이 결론을 얻어 낼 수 있었다. 외국의 경우 우리는 유럽 국가들 중에서는 독일을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는 일본이 어떻게 그들의 문화를 세계화하는 데 성공한 사례를 통하여 한국문화 세계화의 전략을 검토하였다.

한국문화의 세계화전략에 상대방의 약점을 우리의 강점으로 응용하였던 이순신 장군의 전략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8도 강산에 지역의 특수한 음식을 개발하면서 주변의 풍광과 음식 축제를 다 같이 아우르는 문화관광센터를 설립하여 그 안에 외국 관광객들에게 관광정보를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유비쿼터스 시스템을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 음식문화가 세계화하려면 한국을 여행하는 외국인들이 그들의 입맛에 맞는 음식을 만들어 보는 체험관광 , 다른 한편으로 각 외국인의 몸의 체질에 맞는 음식 치료를 받으면서 문화 관광을 겸하는 문화상품도 개발해야 한다.

단계적으로 미디어를 다양하게 개발하여 쉽고 빠르게 세계인들이 한국의 문화의 다양한 정보를 접근할 수 있도록 유비쿼터스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 나라에 살고 있는 한 민족의 단체와 상호 협조 체제를 가질 수 있는 한민족 소통을 위한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References

- [1] A. Reichwein, "China and Europa: Intellectual and Artistic Contacts in the Eighteen Century", Ch'Eng - Wen Publishing Company Taipei, (1967).
- [2] S. B. Chin, "The search of the east in the Western Art", Jib Mun Dang, (2011).
- [3] Das kulturelle Erbe Koreas, Uebertragung von Dr. Young-Ja Beckers-Kim, Dr .Rudolf F. Dietze Hrsg. von Koreanischen Informationsdienst, Jungmoonsa Printing Co., Ltd., (1999).
- [4] I. Yeon, "Sam Gug Yu Sa", Kim, Won Jung trans., Eul Yu Mu Hoa Sa, (2004).
- [5] Y. G. Kim, "Ostnorth Asian Shamanism and Mythology", Dai U Hak Sul Chong Seo, no. 557, Acanet, (2003).
- [6] H. -T. Kwon, (Ed.), "Korean Cultural Roots, Religion and Social Thoughts", North Park College and Theological Seminary, Chicago, Illinois, (1995), pp. 45-69.
- [7] G. Berger, "The More, The Better - Gespraech mit Man-June Paik", In; Sang-Kong Lee (Hg.), Oesterreich - Korea, Festschrift zum 100 jaehrigen Jubilaem, WUV Universitaetsverlag, (1994).
- [8] I. S. Hong, "What do Korean have: Self-monitoring of Koreans for becoming the protagonist of Human civilization of the 21st century", Jeong Shin Se Ge Sa Dan Gi, no. 4337, Seo Gi, (2004).
- [9] S. M. Choi and E. M. Hong, "The musical world of Yoon, I Sang", Han Gil Sa, (1991).
- [10] K. -H. Chung and M. Li, "VonYalu bis zulsar", Benedict Press, (1982).